포스코-GE, 제철분야 '스마트공장 플랫폼' 공동개발

기술·국내외 협력 강화 MOU 체결
스마트 솔루션 사업화 본격 추진
연말까지 모듈 개발·적용성 검증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권오준 회장, 포스코 ICT 최두환 사장, BHGE 마티아스 하일만 CDO, 바우터 반 월시 GE APAC CEO(왼쪽부터)가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접목을 위한 협력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포스코와 제너럴일렉트릭(GE)이 제철설비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

포스코는 1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GE와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접목을 위한 기술협력 및 국내외 비즈니스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제철설비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형 플랫폼인 '포스프레임 플러스(PosFrame+)'를 개발·사업화하게 된다.

이 플랫폼은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인 '포스프레임'과 GE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인 'APM(설비자산 성과관리 솔루션)'이 결합된 모델이다.

철강산업 전용인 포스프레임은 철강제품 생산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 시각화할 수 있다. APM은 제조설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등 최적의 설비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양사는 우선 포항제철소 5호기의 발전설비 등에 APM을 적용, 포스프레임과의 호환성 테스트를 시작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모듈 개발 및 적용성 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프레임 플러스가 개발되면 설비 운영효율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앞으로 포스프레임 플러스를 더욱 발전시켜 제철설비는 물론 관련 후방산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 사례, 주요 기술 등도 공유해 포스프레임 플러스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협력모델도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권오준 회장은 "이번 협약은 스마트 솔루션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HGE의 마티아스 하일만 최고디지털 책임자(CDO)는 "양사는 철강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협약식에 앞서 GE측 관계자들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과 쇼트트랙 경기에 초청해 함께 응원하며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의 평화축제를 함께 즐기고 관람해 양사간의 파트너십을 굳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와 KT스카이라이프 직원이 지난 12일 서울 목동 KT스카이라이프 방송센터에서 올해 출시 예정인 2018년형 삼성 QLED TV(85형)를 이용해 8K UHD 전국 단위 방송 시연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KT스카이라이프

QLED TV로 초고화질 방송 시연 성공

삼성전자와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2일 서울 목동 KT스카이라이프 방송센터에서 올해 출시될 2018년형 삼성 QLED TV를 이용해 전국 단위의 8K(7680×4320 해상도) UHD(초고화질) 방송을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험 방송은 KT스카이라이프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천리안 위성을 통해 전송된 8K UHD 영상을 안테나로 수신해 QLED TV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연에 2018년형 QLED TV 85인치 모델을 지원해 울릉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8K 영상으로 구현했다. 이로써 초고화질 방송 시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8K는 4K(3480×2160) UHD보다 4배 이상 선명한 차세대 초고화질 방송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시험방송을 하고 있다.

이번 시연은 천리안 위성의 Ka대역(20~30㎓)에서 고효율 영상 압축방식인 H.265 표준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위성 전송 역시 기존보다 전송 효율이 대폭 개선된 DVB-S2x 방식이 적용돼 100Mbps급 8K UHD 위성 방송 송수신이 가능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달라진 스마트폰 전략… 신형 무기는 'AI'

G6·V30 버전 업그레이드 공개
카메라 기능 등에 AI 기능 접목

LG전자가 올해 스마트폰 전략을 전환했다. 시즌별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던 것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G6'나 'V30'의 버전 업그레이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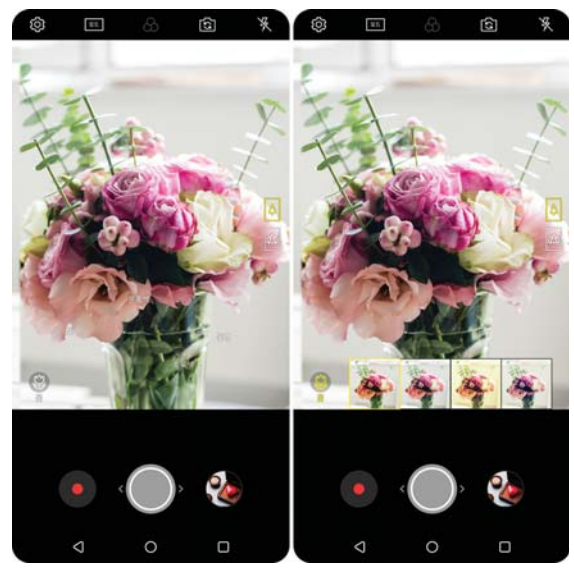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져 시장은 포화되고, 제품의 품질력 향상과 내구성 개선 등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까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MC사업부가 새롭게 꺼내든 카드다.

그러나 단순히 카메라 성능이나 메모리 용량에 대한 기능 업그레이드를 넘어선다. 한층 강화된 인공지능(AI)로 최적의 촬영모드를 추천하거나 상품정보 검색, 쇼핑까지 가능하다.

LG전자는 '2018년형 LG V30'에 1년여 간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분석해 누구나 편리하게 쓰고 싶어 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접목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인 적용 분야는 카메라다. 듀얼 카메라, 저왜곡 광각, 글래스 소재의 크리스탈 클리어 렌즈 등에 더해 사물을 비추면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의 촬영 모드를 추천해주는 AI 기능을 접목했다.

이 기능은 피사체를 분석해 인물, 음식, 애완동물, 풍경, 도시, 꽃, 일출, 일몰 등 8개 모드 중 하나를 골라준다. 각 모드는 화각·색감·반사광·역광·채도 등을 고려해 찍고 싶은 대상의 특징을 살리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이미지 분석 전문 업체와 손잡고 사진 데이터를 1억장 이상 분석해 1000여 개의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은 카메라를 비추는 즉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해 촬영 모드를 추천해준다.

또한 카메라로 촬영하면 피사체의 정보 검색, QR 코드 분석, 관련 제품 쇼핑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손목시계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은 물론 비슷한 제품들까지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다.

음성에도 AI 기능을 강화했다.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LG만의 편의 기능을 음성으로 명령하면 실행해주는 음성 명령어를 23개에서 32개로 늘렸다. 사용자는 손대지 않고도 말로 앱을 실행시켜 주거나 설정까지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LG전자의 카메라 기능을 음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광각 카메라, 시네 비디오 등 LG V30에서 실행됐던 기능들은 물론 최적의 촬영모드 추천, 사물 인식, 저조도 촬영 등 새롭게 탑재되거나 업그레이드된 기능들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는 AI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신제품에만 AI 기능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품까지 확장한다. 제품의 하드웨어 성능 및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AI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2018년형 LG V30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김윤' 박사, SKT AI리서치센터장 취임

〈애플 '시리' 개발 담당〉

애플의 음성인식 비서 '시리(Siri)'의 개발과 고도화를 담당했던 김윤 박사(**사진**)가 SK텔레콤이 지난해 신설한 AI리서치센터장에 취임했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조직인 SK텔레콤의 AI리서치센터는 인공지능(AI)의 요소기술 개발과 사업 가능성 기술 검토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미래 성장을 위한 AI 등 성장 R&D 영역에서 핵심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신설했다.

김윤 신임 센터장은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후 2000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와 함께 미국 3대 싱크탱크로 꼽히는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스탠퍼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박사 취득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네오스피치를 창업하고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았으며, 음성인식 스타트업인 노바리스의 CEO(최고경영자)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애플이 노바리스를 인수한 이후 지난달까지 애플 시리의 AI 기술 연구 개발과 고도화를 이끌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의 AI 인재 육성과 AI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입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 '올림픽 쇼케이스'

삼성전자가 지난 9일 개관한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가 각국 선수단과 관람객들에 인기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중인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선수 브라이언 영, 마이크 테스트위드(한국명 강태산), 마이클 스위프트, 맷 달튼(한국명 한라성), 브락 라던스키(한국명 라동수)가 강릉 올림픽 파크에 위치한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를 방문했다. 이들은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에서 스켈레톤, 알파인 스키, 스노우 보드, 봅슬레이 등 다양한 동계올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 정은미 기자·사진 삼성전자